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다

6. 빚 (Debt)

Opening Talk

오프닝 토크



H 장로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K 집사에게 오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K 집사의 사업 사정이 딱한데다가 마침 은퇴 자금을 받은 것이 있어 기쁘게 빌려준 것이었다. K 집사는 1년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 기도 응답을 해 주셨다”라고 하며 무척 고마워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K 집사는 전혀 돈을 갚을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H 장로는 하는 수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뜻밖에 K 집사는 “그때 본인에게 투자한 것 아니냐고 하며 줄 돈이 현재 없으니 맘대로 하라”라고 통명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H 장로는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 모두 함께 출석하던 교회를 떠났다.

Biblical Point

바이블 포인트



DAS 법률비용보험 한국파트너 강팔용씨의 지갑.
'하나님의 것'이라 적은 메모가 붙어있다.

지출 내역은 그 사람의 신앙과 재물관을 말해준다.

'가불 인생'이라는 말이 있다. 대출로 마련한 집에서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람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데서 나온 말이다. 다음은 어느 신문에 실렸던 기사다!

강 씨(57 · 금융인 선교회 회장, DAS 법률비용보험 한국파트너)는 '부채 없는 사나이'다. 하지만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오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레버리지 투자(빚을 낸 투자)를 하던 강씨가 부채를 청산한 것은 2009년도부터다. 그 해 성경적 도전을 받은 그는 지출 항목을 조정했다. 먼저 빚내서 하는 투자를 줄였다. 개인 재무 상태와 신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출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재물관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빚을 없앤 강씨는 '재물의 청지기'로 살기 위해 '통장 쪼개기'를 감행했다. 월급을 십일조 통장, 저축 통장, 나눔 통장, 생활비 통장에 나눠 운용한 것. 그는 나눔 통장을 '하늘 창고'라 불렀다. 불우한 이들에게 나누는 재물이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의미에서다. 이 계좌를 만들고부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소비는 줄었지만 마음만은 풍요롭다고 했다.

빚 안 내는 생활을 위해 그가 하는 노력은 또 있다. 1년 전부터 강씨는 '하나님의 것'이라 적은 쪽지를 항상 지갑에 붙여놓는다. "무심결에 지갑 속 돈을 제 것인 양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 때마다 돈을 잘 쓰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전 하나님의 재물을 대신 맡은 청지기일 뿐이니까요."

성경에는 무려 2,350개 이상의 구절들이 돈과 물질 등의 재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500번 등장하는 ‘믿음’이나 ‘구원’에 대한 구절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 한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36회의 비유 중 16회가 돈과 재물에 관한 내용이다. 성경은 경제 문제, 재물, 돈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만큼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빛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1. 잘못하면 채주의 종이 된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7). 빛지기 전에 잘 생각하라는 경고다. 빛을 지게 되면 남의 종처럼 되는 신세가 된다. 빛을 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나가 보지도 못하고 빗쟁이들일까 봐 안방에 이불을 덮고 덜덜 떨면서 초인종 소리가 안 날 때까지 귀를 막고 있었다고 한다. 현대판 종의 신세가 된다.

2. 빛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롬 13:8).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은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가르친다.

3. 탐욕을 물리치라: 건전한 빌립(교육, 집값, 자격증 따기, 성장의 기회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버는 돈보다 더 호화롭게 살기 위해(장사, 투자를 포함해서) 빌리는 것은 성경적 원칙이 아닌 탐욕이다. 십계명은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신 5:21)를 가르치고 골로새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5)라고 단적으로 말한다.

4. 남의 빛에 보증 서지 말라: 우리나라도 한때 빚 보증으로 망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성경은 보증 서는 것에 대해 많은 경고를 주고 있다. 특히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보증 선 사람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클 뿐 아니라 잘못하면 파산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잠 22:26-27).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잠 11:15).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보증설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함]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잠 17:18).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새번역, 잠 27:13).

꼭 빚 보증을 서 주어야 한다면 빚 보증보다는 차라리 가진 돈 중에서 나중에 못 받을 각오를 하고, 꾸어 줄 수 있는 만큼만 꾸어 주는 것이 낫다.

5. **기도하라:** 순간적 욕심, 근시적 사고, 판단 미숙으로 빚을 지는 것을 주의하고 빌리기 전에 성령님께 의논하고 기도하라. 어렵더라도 근근이 먹고 살 수 있는데, 한번에 재산을 일으킬 욕심으로 일단 돈을 빌렸다가 패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용카드 빚을 조심해야 한다.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돌려 막기는 위험한 인생의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6.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고도 꼭 빚을 져야 한다면, 갚을 방법을 잘 타진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며,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절약하여, 빚진 돈은 약속한 기간에 꼭 갚아나가야 한다. 이것이 빌린 자의 예의이다.

7. 현재 이미 과도한 빚이 있다면 외부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이자 대출금의 일부라도 먼저 갚아 보는 습관과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자들이여 들으라!

성경은 빚을 지는 사람뿐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많은 조언을 준다.

1. **남의 어려움을 기회로 불로소득을 취하지 말라:** 특히, 취약한 계층이나 사람들을 이용하여 빈곤으로 몰아넣는 이자 취득은 금지되어 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출 22:25; 신 23:19 참고). 여기에서의 이자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돈의 거래와 대출 이자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할 때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부유하게 된 자들은 이자를 받지 않도록 명령하신다. 이자를 받게 되면 그들은 가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미 가진 자들은 더 부유하게 되는, 소위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약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으며 ‘타국인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도록 하셨다’(신 23:20). 이때 타국인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닌 정식 비즈니스를 하는 상인들을 일컬음으로 당연히 당시의 관습에 따라 이자를 받도록 허용하신 것이다.

현대에도 이러한 법 정신은 크리스천들이 실천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과도한 이자를 받거나 집세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건물의 장소 임대세를 상대방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임대주가 조물주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이다. 크리스천 채권자는 항상 채무자의 유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려는 **“네 손으로 하는 법사에 복을 내리시리라”**(신23:20)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자뿐 아니라 원금 받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는 크리스천들의 질문을 받게 된다. 우리는 자선과 정상적 자본의 거래를 구분해야 한다. 상대방이 기본 생계가 안 되는 자선의 대상이면 무조건 도와야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유 없는 온정주의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채무자가 일할 수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갚도록 해서 채무의 책임을 다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돕는 것이다.

2. **빚진 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상황을 늘 고려하라:**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 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 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겹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신 24:10-13, 새번역. 비교: 출 22:26-27). 어떤 상황이든 빚진 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이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3. 빚진 자의 생계 유지 수단은 저당잡지 말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맷돌)위쪽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신 24:6). 맷돌이 중요한 생계 수단일 때 이것을 저당 잡는 것은 그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같다.

4. 빌린 자와 상황을 나누라: 빌린 자가 병, 실업, 사고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빚을 못 갚을 경우 그것이 죄는 아니므로 빚의 의무를 수정해 주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자 없이 갚는 기간을 연장해 준다던가, 일단 회복을 한 후, 또한 직장을 얻은 후에 갚도록 선처를 해 주는 것이 의롭다. 내가 크게 어렵지 않다면 최대한의 선과 호의를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과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다.

이러한 원리들은 비록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백성의 자본주의’가 따로 있음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꼭 돈을 빌리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돈’과 관계되어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과 삶의 질과 안녕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기본 의무다. 또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배려’다. 이렇게 ‘정의로운 자본주의자’들이 많아질 때 사회에 변화의 물결이 일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들에게는 역시 돈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 빚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관점을 나누어 보자.
- 돈보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느꼈던 채무관계를 겪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다른 사람의 경우나 영화에서 본 경우도 괜찮다.



FWIA Voice

요약정리



성경은 빚을 지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중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잘못하면 채주의 종이 되는 신세가 됩니다.



탐욕으로 빚을 지는 것은 성경이 강하게 경고합니다.



남의 빚에 보증 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주들에게 주는 성경의 조건들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빌린자들의 한 맺힌 하소연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채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최대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꼭 빚을 져야 할 상황이라면, 기도, 기도, 또 기도 하면서 진행하십시오.



돈과 관계되어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인격, 삶의 질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